###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 모방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2016년 공화국인민들은 력사적인 70일전투철야진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기적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주체105(2016)년 5월 12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여러가지 기계제작품들을 훌륭히 제작한 단위들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고 계렬생산에 필요한 준비까지 갖춘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는 전시장은 사람들에게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다시한번 가르쳐주는 학교와도 같았다.

새형의 80hp뜨락또르와 115hp디젤기관을 리용한 5t급화물자동차, 새형의 뻐스와 성능높은 전기기관차, 《황금해》계렬의 만능화된 고기배와 5 000t급무역짐배, 여러가지 변압기와 전동기, 다용도, 다기능화된 능률높은 농기계들…

일일이 꼽자고만 해도 아름찬 기계설비들은 하나와 같이 기술경제적의의가 큰 제품들이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기계설비들의 제작이 가지는 의의를 다 말할수 없는것이다.

한두개 부문이 아니라 전력, 석탄, 전자공업과 철도운수, 륙해운부문, 농업과 국토환경보호부문 등 인민경제 많은 부문들의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70일전투의 불길속에 기적같이 태여난것은 공화국인민들에게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였다.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새로 만든 뜨락또르만 보아도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제작해낸것이였다.

그 나날 뜨락또르설계연구소 설계가들이 그린 도면만 해도 7 000여매나 된다고 한다. 과연 이 설계가 짧은 기간에 현실로 옮겨지겠는가고 우려한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실지 금성뜨락또르공장 로동자들이 뜨락또르를 제작하는 과정에 넘은 실패의 고비는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일분일초가 그대로 난관극복의 련속이였다. 하지만 설계와 기술준비에만도 각각 6개월이상씩은 걸려야 한다던 기존관념을 밑뿌리채 뽑아던지며 현대적인 뜨락또르는 한달 남짓한 기간에 제작되였다.

생산자들속에서는 우리것이 제일이고 자력갱생이 제일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물론 현대적인 뜨락또르 그자체도 귀중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욱 소중히 깃든것은 결심만 하면 그 어떤 현대적인 기계설비도 다 만들어낼수 있다는 설계가들과 로동자들의 신심과 배짱이며 그처럼 짧은 기간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 우뚝 올라선 이 공장의 모습이였다.

배무이라는 초행길에 주저없이 뛰여든 령남배수리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제관, 용접작업기일을 기성관념의 4분의 1이하로 단축하였다. 보통때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었던 기술혁신안들이 쏟아져나와 5 000t급무역짐배무이에서는 가슴후련한 새 기준, 새 기록이 창조되였다.

단 이틀동안에 전기기관차 한대를 조립해내는 놀라운 성과를 안아온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자들은 70일전투기간 계획보다 두대나 더 많은 전기기관차를 제작하였다.

조선사람의 자존심과 존엄을 걸고 남들이 걸은 열, 백걸음을 한걸음에 뛰여넘으며 내달려온 로동자, 기술자들의 모습이 매 기계설비마다에 비껴있었다.

청진뻐스공장의 로동자들은 6개월이라는 지구장비제작기일을 한달 남짓한 기간으로 대폭 줄이며 새형의 뻐스를 제작해냈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은 디젤기관 설계와 과급기제작 등 선진기술이 집약된 5t급화물자동차를 생산해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이들의 경험은 어떤 일이든지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신심, 자력갱생이 제일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계설비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만든 기계제품들은 하나와 같이 세계적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특히 마음에 드는것은 여러가지 기계제품들을 다른 나라의 견본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제작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무정형철심을 리용한 변압기, 에네르기절약형변압기, 전동기, 풍력발전기, 채취기계설비들 그리고 산림기계들… 하나하나의 전시물들은 모두 과학기술의 창조물들이였다.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전시품들가운데는 무정형철심을 리용한 변압기도 있었다. 이 변압기제작에서 핵심기술인 급랭련속주조에 의한 무정형합금띠생산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기술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몇개 나라의 독점물처럼 되여있었다.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이 기술확립을 결의해나섰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과학은 욕망으로 되는것이 아니라고 우려하였다. 이들이 무정형합금띠를 만들어내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기어이 해냈다.

령도자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애국열의, 기어이 세계를 디디고 오르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 높은 실력에 기초한 과학기술인재들의 비상한 창조력으로 굳건히 담보되고있는것이 기적과 혁신을 낳는 공화국의 과학기술력이다.

전후에 빈터에서 맨손으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며 천리마시대를 빛내였다면 70일전투의 나날에는 세계를 딛고 첨단급의 기계설비들을 최단기간에 제작하며 거창한 시대를 다시한번 격동시켰다.

자력갱생은 목숨보다 더 귀중한 존엄이고 자존심이다. 바로 이것이 전시회가 세계앞에 다시금 보여준 공화국의 신념과 의지이고 불변의 철리였다.

본사기자 김 춘 경

5 000t급무역짐배 《자력》호 출항식 진행(2017년 4월)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진출식 진행(2017년 12월)

## 서로 다른 두 현실

인류의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근원인 로동, 이를 떠나서 력사의 발전과 인류의 존재를 생각조차 할수 없다.

이런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귀중한것으로, 근로하는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고있다.

언제인가 취재길에서 만났던 한 녀성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되새겨진다.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 반장으로 일하고있는 조길녀녀성이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자기 맡은 초소에서 인민을 위해 성실히 일해오는 나날에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표창장을 수여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으며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을 거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성장하였다.

201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될 때 대의원후보자공시판에 나붙은 조길녀녀성의 사진은 선거장을 찾은 외국기자들을 깜짝 놀래웠다.

이 녀인이 로동자가 맞는가?

로동자가 어떻게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의 대의원이 될수 있는가?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

기자들은 조길녀녀성을 직접 만나본 후에야 의문을 풀수 있었다. 한 녀기자는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도로관리원이 그것도 녀성이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의 한 성원으로 된다는것은 오직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지난해 조길녀녀성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으로 다시금 선거되였다.

평범한 근로자들을 정권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도로관리원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에서 정사를 론하는 인민의 대표가 되고 값높은 삶을 누리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가운데는 조길녀녀성과 같은 로동자출신 대의원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기에 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로동자대의원이라고 정답게 부르고있다.

로동자대의원.

불러볼수록 인민의 세상, 로동자들의 세상인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는 말이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다.

《인터네트봉사소피난민》

집이 없어 인터네트봉사소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고있는 일본의 반실업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일본의 한 반실업자는 《이 공간은 완전한 나의 〈소유물〉이다. 비록 비좁고 소란스럽지만 바람과 비를 막아줄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말하며 자기의 처지에 대해 다행스러워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잡지는 일본의 이러한 실태에 대해 렬거하면서 《인터네트봉사소피난민》들의 궁핍한 생활은 일본을 발전된 나라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의 인식과는 크게 차이난다, 21세기초부터 일본에서는 집세를 물수 없어 인터네트봉사소를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인터네트봉사소피난민》이라는 용어까지 새로 생겨났다고 조소하였다.

《실업홍수》, 《실업사태》…

이 말들에도 거리마다 실업자대군이 차넘치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 반영되여있다.

인간의 권리가운데서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것의 하나가 바로 로동의 권리이건만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것보다 더 어렵다.

실업자들은 현란한 네온등 아래에 거적을 깔고 길손들에게 구걸의 손을 내밀고있다. 타락한 사람들은 마약을 서슴없이 사용하고있으며 비관과 절망에 빠져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2016년사이에 25살부터 64살까지의 주민 45만 3 57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자살률은 41% 늘어났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살률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25% 높았다고 한다.

실업자들에게 당신들이 겪고있는 심리적고통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다.

《해고당하면 처음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다음에는 행여나 일자리가 다시 차례지겠지 하는 가냘픈 희망을 품는다. 그런 후 생활의 궁핍을 이겨내기 위해 생전에 해보지 못한 별의별 일을 다 해본다. 그래도 일자리는 차례지지 않는다. 생활은 목과 온몸을 조인다. 사태의 엄중성을 깨닫고 자살로써 사회에 항거한다.》

누구나 일자리걱정, 집걱정을 모르고 평범한 로동자들이 대의원이 되고 영웅이 되는 공화국의 현실.

초보적인 로동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실업이 하나의 악성종양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실.

국적인 대조를 이루는 두 현실은 참으로 많은것을 시사해준다.

본사기자 황 금 숙

우리 공장, 우리 제품

## 체육인들과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대성산》 제품들

청춘거리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체육기자재공장에서 생산하는 《대성산》상표 제품들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체육인들과 애호가들속에서 호평을 받으며 즐겨 리용되고있다.

이 제품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만든 체육기자재들이 다른 나라 제품에 못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축구공생산의 최근 발전추세에 맞는 여러가지 종류의 공들과 체육기자재들 그리고 여러 형태의 체육인가방과 체육선수복장들도 생산하고있다.

특히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만든 3인롱구공은 그 질이 매우 좋으며 《대성산》상표를 단 태권도선수용장갑, 감독장갑, 보호대, 가방은 손색이 없어 지난해부터 국제경기무대에서 사용되고있다.

이 제품들은 해마다 진행되고있는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다.

평양체육기자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대성산》상표 제품들을 더 훌륭하게, 더 많이 만들어 나라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실화

# 조국에 드리는 녀의학자의 노래 (3)

—평양의학대학 림상연구소 리영은실장—

## 탐구자의 자격문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그마한 타협에서부터 탐구자의 기본자세가 흐트러지는 법이다.

연구사업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 그 어떤 위안으로써도 완화될수 없는 곤경에 처했을 때 사방을 꽉 막고 시시각각 조여드는 심리적좌절감을 어디에 하소연하기는 싫었다.

안타까운것은 그의 열정이 어딘가 변해가고있는것이였다.

신변잡사에 왼심이 쏠리는가 하면 연구소직원들의 신상과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열성스레 뛰여다니느라 엄밀하게 타산하고 작성했던 시간표도 뒤전에 돌려놓은적이 많았다.

이를테면 과학일변도로만 내닫던 녀성의학자의 마음이 《공평한 열정의 재분배》에로 지향되는셈이다. 이 모든것자체가 자그마한 타협으로 조금씩 추진되다가 점점 가속되고있음을 실감있게 깨닫기까지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였던 어제날의 순진한 소녀였다. 그리고 크나큰 포부를 안고 위대한 장군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리기를 열망하는 조선의 딸, 내 조국의 녀성의학자이다!)

그는 분연히 일떠서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바다진주》를 보다 훌륭하게 완성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였다. …

과학탐구의 기나긴 로정을 제힘으로 돌파한 녀의학자는 성장했고 강해졌으며 더더욱 일에 전념하면서 성과를 기록했다.

특이한 인생행로가 녀성의 학자로서의 자격에 대하여 많은것을 가르쳐주려고 작정했는지 힘에 부친 일감들이 끊없이 잇달려 그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였다.

진지하고도 고심어린 노력은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내였고 책상을 뒤덮은 각종 증서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의 《키》를 자래웠다.

그의 박사학위론문 최종심사에는 그를 적극 지지해주던 후보원사 교수 박사 최찬석선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언제나 그를 탐탁치 않아하던 《권위자》 정선생도 나중에야 무겁게 찬성하였다.

심사모임이 끝나자 그는 불편한 다리를 천천히 끌며 다가와 적합한 표현을 고르는지 한참 갑자르는것이였다.

《그 론문 … 잘 보았소. 수고했소. 여러해동안 묵어있긴 했지만 그새 더 숙성되고 발효되여 모두들 취하게 하는구만.》

리영은은 피씩 웃었다.

《압니다. 제가 왜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새로운 연구목표이니 처음엔 반신반의했고 그 다음엔 인정을 하였지만 보다 완벽하게 되길 바래서 왼새끼도 곧잘…》

그제야 정선생은 얼마간 긴장하게 굽히였던 허리를 곧추

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소. 고마워…》

그는 손으로 리영은의 팔굽을 잡았다놓더니 천천히 자리를 떴다.

심사전날 정선생의 수제자라고 자칭하는 조박사가 귀띔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실장선생, 알기나 하오? 우리 정선생님이 선생의 론문을 놓고 오래동안 고심했다는것을 말이요. 원래 앞서가는 사람의 길은 뒤사람이 더 잘 보기마련이지. 인류가 도달한 선진적인 경험이나 발전수준을 무시할수는 없다고 주장해온 정선생인지라 수많은 관련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느라 병이 날 지경이였소.

그런데 평범한 녀성의학자가 용감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 못한 일에 달라붙었으니 대견함보다 걱정이 앞섰던거요.》

문득 정선생의 훈시와 가슴아픈 지적이 새로운 의미로 안겨오는것이였다.

(그가 말했더랬지. 우물안의 개구리는 세상천지를 다 볼수 없고 반디불은 먼곳을 비칠수 없다고… 참 별나게 관심해주고 별나게 채찍질해주지 않았는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확실히 정선생은 그가 마음의 탕개를 조금이나마 늦출세라 사심없는 방조를 주려했던것 같았다.

그가 《못살게》 구는 바람에 리영은은 자기의 부족점을 더 뚜렷하게 자각하게 되였고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던것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무엇이 결여되여있었는가. 자기의 내면세계에 잠재적으로 은폐되여있는 결함을 찾아낼줄 알면 현명한것이고 그 결함을 극복할줄 알면 강한것이다. 정선생은 과연 이것을 기대했던것이 아닌가.)

리영은은 심중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감정변화에 조용히 귀기울이고있었다.

## 조국에 드리는 노래

TV촬영기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였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 최찬석, 연구사 류현휘, 인민체육인 최명심, 체육부문의료일군인 라찬덕…

이들은 모두 리영은이 걸어온 과학탐구의 로정에 대하여, 그 결실에 대하여, 녀성의학자가 가슴속에 품고사는 가장 소중한 세계에 대하여 격정을 터놓았다.

이것이 소개편집물 《보답의 길에 새겨지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방영되여 눈에 익은 광산의 버럭무지며 풀숲우거진 산등성이들이 펼쳐질 때 리영은은 새로운 감회에 젖어들었다.

최근년간 그는 조선로동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체육인들속에서 나타나는 운동성간장애 및 소화장애를 없애는데 효과적인 《활성천연종합광물질 생명H》를 완성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리였다.

지난 시기 동서해의 수천리 바다기슭을 편답하던 그 걸음으로 광산마을을 찾아 크고작은 산발을 넘나든 녀성의학자.

국내에 흔한 10여가지의 광석버럭들의 조성과 분포상태를 파악하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형성된 천연약재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한 그는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였다.

탐사를 진행하던 산기슭에 낮추 떠돌던 고추잠자리, 뭇새들이 우짖는 정다운 산천, 무성한 풀숲에서는 산메뚜기들이 용수철처럼 툭-툭-탄력있게 튀여올라 확대경을 쥐고있는 팔꿈치며 어깨에 달라붙기도 하던 잊지 못할 고장들…

한켠에서는 이름모를 자그마한 꽃잎들이 한가득 피여나 진밤색의 보르르한 조끼를 떨쳐입은 산벌들이 붐비고있는 광경과 어울려 한폭의 수채화를 보는것만 같았다.

이 모든것은 확실히 대자연의 신비한 언어였다.

아니, 이 땅 방방곡곡에 펼쳐져 누구나 쉽게 읽을수 있는 조국사랑의 부피두터운 책이였고 노래였으며 미래에 대한 찬가였다.

그래서 리영은은 광석버럭들을 묵직하게 안아들었고 이속에서 보석을 찾는 심정으로 귀중한 약재를 완성해나갔던것이다.

현재 소화 및 단백합성효소의 활성을 높여주어 체육인들속에서 호평받는 《활성천연종합광물질 생명H》는 체력을 증진시키고 피로회복과 아이들의 키크기를 촉진하는것은 물론 면역계통과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비뇨기, 뇌신경, 내분비 등의 생리기능을 높여주는것으로 하여 《비타민의 세기》에 이어 현시대 -《광물질의 세기》에 걸맞는 리상적인 약품으로서 뚜렷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기자들앞에서 그는 말하였다.

《쓰면 보물, 버리면 오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아주고 키워주는 품이 없었다면 어떻게 인생을 값있게, 빛나게 살수 있겠습니까. 쓸모없이 버려진 버럭처럼 이역땅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저를 조국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은 과학자로, 박사로 키워준것이 바로 내 조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땅우에 버려진 한줌의 버럭도 저에게는 다 금싸래기처럼 귀중히 여겨집니다.》

…

그의 집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친필이 가보로 보관되여있다.

《1992년 12월 16일
김 정 일》
《1999년 12월 15일
김 정 일》

리영은선생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사업과 생활을 료해하시고 한생을 변함없이 조선로동당의 충직한 전사, 참된 의학자로 성장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하기에 그는 오늘도 과학연구사업과 치료예방사업에 모든 열정을 다 바치며 높은 실적으로 조국에 드리는 노래를 한생토록 부르고있는것이다.

안 창 준

(끝)

리영은실장이 받은 과학기술성과증서들